

전북

새만금 방조제 쌓은 이후 변산 해수욕장 침식 가속

농어촌공·군산대 "해류·유속변화로 4년간 年2cm ↓"

새만금 간척사업이 변산 해수욕장 침식현상을 가속화시킨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농어촌공사와 군산대는 현지 주민들의 원인규명 요구로 지난 2007년부터 4년간 변산 해수욕장 지형변화에 관한 공동연구를 실시한 결과 변산 해수욕장 침식 원인은 자연현상과 새만금 간척사업이 맞물린 복합요인으로 밝혀졌다.

주원인은 지구 온난화로 인한 해수면 상승 등 자연변화와 함께 새만금 방조제를 쌓은 뒤 해류와 유속 변화가 한몫했다는 분석이다. 최근 4년간(2007~10년) 백사장 높이를 측정한 결과 연평균 2cm 가량씩 낮아지는 침식 현상이 관측됐다. 다만 20년 전과 비교하면 총 8cm정도 낮아져 침식이 퇴적 현상이 반복된 것으로 분석됐다.

농어촌공사 관계자는 "변산 해수욕장의 지형변화는 다른 지방 연안과 마찬가지로 자연현상이 주된 원인으로 나타났다"며 "하지만 새만금 방조제를 쌓은 후 지형변화가 좀 더 심해지는 등 새만금도 자유롭지 못한 것이 사실이다"고 말했다. 한편 한국농어촌공사는 오는 17일 부인 변산면사무소에서 주민 공청회를 갖고 이 같은 내용의 변산 해수욕장 지형변화에 관한 연구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전북취재본부=강철수기자 knews@



치즈스쿨에서 송아지 우유주기

남원시 드림스타트센터(센터장 최성연)는 지난 11일 임실 치즈스쿨을 찾아 송아지 우유 주기 등 다양한 체험활동을 했다. 센터는 앞으로도 부모와 아동이 함께 참여하는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이다.

남원시 드림스타트센터(센터장 최성연)는 지난 11일 임실 치즈스쿨을 찾아 송아지 우유 주기 등 다양한 체험활동을 했다. 센터는 앞으로도 부모와 아동이 함께 참여하는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이다.

전북취재본부=백성기자 bs8787@

남원 서도역·서도마을

'지붕없는 미술관' 변신

대하소설 '혼불'의 중심 배경지인 남원시 사매면 구 서도역과 서도마을이 '지붕없는 미술관'으로 변모했다. 남원시는 지난 10일 사매면 구 서도역에서 마을미술추진위원장, 참여 작가 및 마을주민 등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0 마을미술프로젝트사업 프로젝트 '마안, 서도가 좋아졌음교?' 개막식을 가졌다. 이번 프로젝트에 따라 작가 5명이 '혼불'을 소재로 한 ▲혼불 폴(Pole) ▲벽화-사리지는 것, 탄생하는 것 ▲작가탑 ▲노적봉과 혼불사람들 ▲행희,남영차 등 작품을 설치했다.

전북취재본부=백성기자 bs8787@

전주 올 신선농산물 80억 수출

지나해 두배...市 물류비 지원도 한 몫

전주지역에서 생산되는 배·장미 등 신선 농산물 수출액이 지난해보다 2배 이상 증가했다. 13일 전주시에 따르면 올해 배·장미·국화·양파 등 총 1200t을 수출, 79억5000만원의 수출실적을 올렸다. 이는 지난해 1371t(3399000만원)보다 물량은 적지만 수출액은 45억6000만원이 증가한 것이다. 특히 화훼류의 경우 장미가 지난해 9억2600만원에서 39억9800만원으로, 국화가 9억2000만원에서 21억

6100만원으로 급증했다. 화훼류는 전체 수출물량의 75% 이상이 일본·러시아 등지로 수출되고 있어 앞으로도 수출 효과 작목으로 떠오르고 있다. 이러한 호조세는 전주시의 수출 농가 및 대형업체에 대한 수출물류비 지원도 한몫하고 있다. 전주시는 한·미 FTA 타결등 수입 개방으로 어려운 농업의 대안으로 과실류, 화훼류, 채소류 등 신선농산물 수출에 소요되는 물류비를 농가에게는 20%를, 수출대형업체는 10%를

지원하고 있다. 배농가 백승진(45·완산구 중인동)씨는 "올해 배작황이 부진했으나 생산량 감소로 가격이 올라 15kg 배 한박스 가격이 11304 원이었는데 '한배 페기처분 하기도 했던 농산물에 수출물류비를 지원하면서 소득향상에 크게 기여하게 됐다'고 말했다. 전주시 이용호 친환경농업과장은 "수출 농산물의 원가상승 요인으로 포장, 운반 등 물류비를 지원함으로써 수출의욕을 높일 것"이라며 "농산물을 생산해 수출하는 것만이 농업개방 시대의 새로운 대책"이라고 말했다.

전북취재본부=강철수기자 knews@

군산 근대문화도시 조성 '스토리텔링' 발굴 중요

오늘 군산대서 포럼

군산시가 '근대문화도시' 조성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건축·공예·미술 등 다양한 분야 전문가들이 모여 '스토리텔링'의 중요성을 논의했다. 이날 포럼은 군산 근대문화도시 조성사업의 일환으로 '근대문화도시 조성 포럼' 발표자료를 통해 '장소마케팅과 스토리텔링을 결합시켜 장소의 가치를 발견하고, 의미를 새롭게 만들어 갈 수 있다'며 "전시기획이나 탐방코스 개발을 위한 좁은 의미의 공간 스토리텔링을 넘어서 구체적인 장소를 무대로 개인들의 체험을 이야기하고 교류함으로써 그 도시의 주민과 방문자 모두에게 새로운 장소의 대상으로 거듭나게 된다"고 강조했다.

이날 포럼은 군산 근대문화도시 조성사업의 일환으로 '근대문화도시 조성사업'과 '근대역사경관 사업'의 본격적인 착수를 앞두고 지속 가능한 발전 모델을 도출하기 위해 마련했다. 이복용 군산문화원장은 "군산은 갑오경장 이후 개화기 문화를

한눈에 볼 수 있는 근대 문화유산의 보고"라며 "타지역과 차별화된 군산 근대 역사문화를 콘텐츠로 미래 가치를 재조명하고 도시경쟁력 발전에 기여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군산 근대문화도시 스토리텔링이 성공하려면 주민들이 공유하는 이야기에서 출발하고 주민들의 참여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제언이다.

장성화 전북발전연구원 연구위원은 "안내관에 적혀있는 일방적인 이야기가 아니라 지나가던 할아버지·할머니가 무심코 목격해주는 이야기와 같은 지역역사와 문화속에 뿌리내린 이야기를 소재로 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철철 근대문화도시 추진위원은 "주민들의 의견이나 아이디어를 먼저 수집해 이를 바탕으로 전문가 그룹에서 다듬어 스토리텔링을 만들어 가는 과정이 필요하다"며 "지역주민들의 참여와 공감이 있는 근대문화도시의 탄생은 허무한 꿈이 아니라 현실"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군산시는 군산항과 군산시 일대에 조성된 일제시 가옥과 은행, 창고 등의 잔재물을 '근대문화유산벨트'로 묶어 내년부터 관광상품으로 개발할 계획이다.

전북취재본부=백성기자 nogusu@

돌고장 익산 함열에 '돌숲공원'

도, 35억 투입...내년말 완공

내년 말에 익산 함열에 돌을 테마로 한 돌숲공원(문화공원)이 조성된다.

전북도는 최근 지방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익산시 함열읍 외리에 석채산업과 연계한 돌문화 주제공원을 조성키로 했다. 주제공원은 도시의 역사적 장소나 유적, 문화적 특성을 활용해 휴식·교육 등을 목적으로 설치하는 공원이다.

도는 사업비 35억원을 투입해 3만4750여㎡의 부지에 기존 돌문화축제의 전시관 작품을 활용한 돌숲 조성

지를 비롯해 광장, 전망대, 농구장·축구장·다목적운동장 등 체육시설을 설치할 계획이다.

익산 함열은 화강석 가공업이 발달해 1980년대까지 '석재의 고장'으로 명성을 날렸으나 이후 중국과 대만 등지의 값싼 원석에 밀려 석재시장에서 위상이 약화됐다.

전북도 관계자는 "남이섬은 문화·예술의 콘텐츠가 풍부한 섬으로 재탄생해 방문객과 매출액이 증가했다"면서 "익산 돌을 주제로 한 공원이 시민과 관광객들로부터 사랑을 받는다면 익산 석채산업의 부활에도 보탬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전북취재본부=류정기자 ryu0418@

군산항 7부두 내년 1월부터 운영

당초 내년 6월말 준공 예정인 군산항 7부두가 이르면 내년 1월부터 운영될 전망이다.

군산 지방해양항만청은 하역여건 개선 안정작업을 완료한 7부두에 대해 준공된 사용허가를 내줘 TOC(부두운영회사)에서 우선 사용토록 할 방침이라고 13일 밝혔다.

현재 7부두는 5만t급 선박이 접안해 안정적으로 하역할 수 있는 능력 갖춘 상태이며 야적장 공사가 진행 중이다.

항만청은 7부두 조기 운영방향을 정한 것은 현재 5부두의 하역물량이

포화상태에 달한 데다 5만t급 이상 대형선박의 하역을 원활히 하기 위한 것이다.

2005년 착공된 군산항 7부두는 5만t급 목재부두 2개 선석과 3만t급 잡화부두 1개 선석, 600m 크기의 야적장을 갖추게 된다.

따라서 그동안 수심이 낮고 비교적 좁은 야적장 문제 때문에 인건비가 평탄으로 갔던 대형 선박이 곧바로 군산항으로 들어올 것으로 예상돼 군산항의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전북취재본부=백성기자 nogusu@



임실 용암리석등 '진구사지석등'으로

문화재청, 명칭 일제정비

임실군의 대표적인 국가지정 문화재인 신평면 용암리 석등(보물 제267호)의 명칭이 '진구사지석등'으로 변경된다.

이번 명칭변경은 문화재청이 그동안 지정명칭의 명명(命名) 방식이 일제강점기와 근·현대를 거쳐 왜곡되고, 지정명칭과 관련된 통일된 기준이 없어 혼란스러웠던 것을 누구나

쉽게 이해하고 알 수 있도록 명칭 부여 기준을 마련한 데 따른 것이다. 임실 진구사지석등의 경우 지난 1992년 문화재청의 발굴조사로 절터의 명칭을 밝힐 수 있는 명문기와 조각 발견으로 '진구사지석등'이 확인된 바 있다. 이를 위해 문화재청은 지난해초 임실군과 관리자 등의 의견을 수렴했으며 16일 문화재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적으로 명칭변경을 확정한다.

전북취재본부=서은종기자 seo@

Real estate advertisement for GG경매 컨설팅(주). The ad features a large header 'GG경매 컨설팅(주)' and a sub-header '대표이사 노찬구 ☎ 222-1907'. It lists various real estate services and provides detailed information about a specific property auction. The property is located in Gwangju and is a 3-story building with a total area of 1326㎡. The ad includes a table of property details, a list of services, and contact information for the company.